

러시아산 천연가스 북한 경유 “무산”

가스공사, 남북관계 및 비용문제가 원인 ... 비축기지 운송으로 대체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도입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9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베리아산 가스를 먼저 LNG(액화천연가스)로 도입하고 북한을 경유하는 PNG(파이프라인 방식)은 북한이 요구하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공급선인 러시아 Gazprom과 PNG를 최우선 대안으로 검토해왔으나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과 비용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을 경유한 러시아산 가스 반입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시베리아산 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의 종착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스 액화공장을 만들어 건설 중인 삼척 비축기지와 기존의 가스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공급선 다변화 차원에서 2009년 4월부터 사할린산 가스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연간 최대 750만톤 가량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가스공사는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가스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러시아 가스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북극해 연안의 야말반도가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9>